

# 원전학 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

## -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暎園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度勳\*

### A Study on the Current education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in Korea -A Study focused on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Kyungwon University

Kim Do Hoon

For the purpose of profound comprehension of the Current education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in Korea, I investigated the results of direct survey of the Current education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from each professor, and came to following conclusions.

1. The education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mainly lasts for 2 years. Students have average 6.59 hours of lecture every week. The rate of full service professor reaches 74.4%. But the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in every college takes charge of many subjects which are related to Oriental medical classics, so the appointment of large number of full service professor is essential for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2. After the publishing of the common textbook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it gradually became the main textbook. But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complement the textbook and it is also necessary that we should develop another textbook for Nangyeong(難經).

3. Most professors emphasize on the cultivation of the ability which enables Oriental medical thought through precise comprehension of original text. By the way, for the purpose of motivation of studying Oriental medical classic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lecture which is related to clinical medicine. From the same context it is also necessary to read clinical original text such as Dongui-bogam(東醫寶鑑) and Uihakimmun(醫學入門) in class.

Key words : Oriental medical classics(原典學),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education, survey

## 서론

韓醫學은 유구한 세월 속에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비록 근세 서양의학의 발달로 인해 보편의학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했지만, 다른 보완의학이나 대체의학과 함께 한의학이 가진 정

\* 교신저자: 金度勳, 暎園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31-750-5422, [chulian@kyungwon.ac.kr](mailto:chulian@kyungwon.ac.kr)

\* 이 연구는 2006년도 경원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신들이 오늘날 서양의학에서 던져주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각광받고 있다. 韓醫科大學에 대한 수험생의 선호와 韓醫師에 대한 직업선택도도가 나란히 상승한 것들도 이런 점들을 반영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한의학에 대한 기대와 한의학계의 외형적 성장과 전문대학원 설립 논의와 같은 각계의 관심과는 별도로, 실제 임상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한의학의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인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많은 한의사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 치료에 관한 부분에서도 여기저기서 한의학은 공격과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의학의 전통에 근거해서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의학이 21세기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의문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전통에 입각한 제대로 된 한의학 교육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것이다. 한의학 근간이론에 바탕을 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야말로,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의 표어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전국한의과대학 교육협의회를 통해 1995년 韓醫科大學 學習目標의 발간과 1996년의 개정작업, 2006년 전면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요 교과목들의 학습목표와 배당시수 같은 부분들이 다루어졌으며, 단원별 학습과제가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한의과대학 교과목이 어떤 학년에서 몇 시간, 몇 학점을 이수하는지 등의 교육현황에 관한 전면적 조사는 전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를 통해 2001년, 2003년, 2006년 세 차례 간단히 실시되었으며, 과목별 심도 있는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교과과정이나 학습목표, 나아가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의학 기초이론 교육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原典學을 대상으로 하여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원전학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원전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原典學은 한의학 이론의 바탕이 되는 기본 고전으로 그 범주가 『黃帝內經』, 『難經』, 『傷寒論』, 『金匱要略』 등을 주축으로 溫病學의 원전, 우리나라의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 등의 광범위한 原典을 포괄한다. 그러나 각 대학의 원전학 교육은 대개 한의학 이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黃帝內經』을 위주로 이루어지며, 텍스트가 가지는 정통 한의학의 이론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함으로써 한의학에서 운용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정립해 나가고 있으므로 『內經』 중심의 원전학 교육을 본 논문에서 다루었다.

## 본론

### 1. 과거 原典學의 교육 개괄

우리나라 原典學은 한의학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던 시절부터 한의학 연구의 근거가 되고 주축이 되어 왔으며, 한의학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가장 핵심적 과목으로 인정되고 교육이 이루어져왔다. 1971년 慶熙大學校에서 처음으로 原典教室이 독립적으로 성립되어 독자적 基礎學教室로서의 발관이 만들어졌으며, 이어 깊이 있는 원전학 연구의 학문적 필요성에 의해 原典醫史學教室로 운영되어 왔다. 그 후로 각 학교별로 醫史學教室이 독립되어 가면서 전국 原典學教室을 중심으로 한의학 연구와 기초교육의 핵심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과거 原典學의 교육을 교

1) 대학원의 경우 아직 대학원에서 원전학 전공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고,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지므로, 교육보다는 연구의 측면이 중시된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재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sup>.

60년대 말<sup>3)</sup>에 『原書講讀』이라는 謄寫教材가 ‘慶熙大學校 醫科大學 漢醫學科’에서 간행되었는데<sup>4)</sup>, 이 교재는 『類經』 卷一에서 卷九까지의 『內經』 원문을 謄寫하여 교재로 쓴 것이다. 전체 32卷인 『類經』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룬 것인데, 攝生類, 陰陽類, 藏象類, 脈色類, 經絡類 까지 『類經』의 12개 부류 가운데 다섯 부문을 포괄한다. 養生, 陰陽, 藏象, 診斷, 經絡 정도로 오늘날 원전학교육의 범주도 대략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1970년 간행된 謄寫教材 『內經』은 ‘慶熙大學校 醫科大學 基礎學教室’ 간행으로 되어 있으며, 『素問』의 31편까지의 내용을 原文과 懸吐를 달아 간행하였다<sup>5)</sup>. 이때부터 대략 『黃帝內經』의 차례대로 원전학 교육이 이루어진 것 같다.

1971년 原典教室의 성립으로 인해 원전학 교육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때부터 대만에서 발간된 『黃帝內經』을 영인하여 교재로 썼으며<sup>6)</sup>, 『黃帝內經素問解釋』(1971년), 『黃帝內經靈樞解釋』(1973년) 등을 통해 보조자료로 삼았다. 여기에 당시 교재로 썼던 원문이 영인되어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상기 해석본 둘은 우리나라 최초의 『黃帝內經』 國譯本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 후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주로 대만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 온 馬元臺, 張隱庵 合註 『素問靈樞』 영인본이 쓰이기도 했고, 臺灣에서 1976년 출간된 楊維傑의 『黃帝內經素問譯解』, 『黃帝內經靈樞譯解』가 영인되어 교재로 쓰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81년 『精校黃帝內經』이 간행되어 우

리나라에서 최초로 활자화되어 대체로 誤字가 없는 교재로 쓰였으며, 1985년 校勘注를 첨가하여 『精校黃帝內經素問』, 『精校黃帝內經靈樞』가 나와서 90년대까지 쓰여왔다. 그 과정에서 王琦 등이 편찬한 『素問今釋』(1981년), 『黃帝內經素問校釋』(1982년), 『靈樞經校釋』(1982년), 『素問注釋匯粹』(1982년) 등이 보조자료 혹은 텍스트로서 쓰였다.

이후 『精校黃帝內經』에 직역을 추가하여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1992년),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1994년) 등이 교재로 쓰였고, 우리말 주석서로는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註釋』이 간행되기에 이르렀으며(1998년) 역시 보조자료 혹은 텍스트로 쓰였다.

이상은 慶熙大學校의 강의텍스트를 위주로 원전학 교육을 살펴 본 것인데, 각 대학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이 2005년 『類編黃帝內經』이라는 공동 교재 발간 이전의 상황인데, 2004년부터 1년의 준비기간을 걸쳐 발간된 『類編黃帝內經』은 상기의 교재와는 달리 12편의 주제에 따라 『黃帝內經』의 해당 부분을 주제별로 선별하여 간행되었으며, 다시 1년간 개정작업을 통해 2006년 개정판이 간행되어 교육현장에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30여년 지속되어 온 『黃帝內經』 교육이 王冰本의 편차에 따라 이루어지던 것에서 변화되어, 주제별로 분류되어 텍스트로 제시되게 되었다.

## 2. 원전학 교육현황 개괄

본 논문에서는 우선 원전학 교육이 각 대학에서 몇 학년에서 몇 시간, 몇 학점을 이수하는지, 원전학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과 각 대학의 정원 등은 어떠한지의 전면적 교육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에 관한 전면적 조사를 담은 자료로 전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를 통해 2001년, 2003년, 2006년 실시된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1집, 제2집, 제3집을 선정하여 이를 취합하였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 당시의 교육과정은 연구자의 여건상 파악이 어려워 교재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엮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 3) 1970년 간행된 “內經”교재는 慶熙大學校 醫科大學 基礎學教室에서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그 이전 간행으로, 慶熙大學과 東洋醫科大學이 합병한 1965년 이후에 간행한 것이다.
- 4) 표지가 있고 본문은 119쪽으로 되어 있다.
- 5) 표지, 차례가 있고 본문은 84쪽으로 되어 있다.
- 6) 원래 영인본 책 이름은 黃帝內經素問으로 靈樞가 붙어서 文光圖書有限公司에서 간행되었다. 林億, 孫奇, 高保衡 등이 교정하고 孫兆가 改誤한 “補註黃帝內經”을 영인한 것이다.

정원	학년	1학기	시간	학점	2학기	시간	학점	전임	비고
경희	120	한의학과 2			원전1	6 3 1			의사학제외
		한의학과 1 원전2	6 3						
원광	100	한의학과 2 원전학1	5 4		원전학2	5 4 2			의사학, 진단학 제외
		한의학과 1 원전학3	5 4		원전학4	4 3			
동국	80	한의학과 1 원전 및 세미나1	6 4		원전 및 세미나2	6 4 2			의사학포함
경산	120	한의학과 2 운기학	2 2		원전강독1	2 2 1			
		한의학과 1 원전강독2	2 2		원전강독3	2 2			
		한의학과 2 원전강독4	2 2						
대전	80	한의학과 2 원전1	2 1		원전2	2 1 2			의사학포함
		한의학과 1 원전3	7 4		원전4	3 2			
동의	50	한의학과 2 원전1	4 2		원전2	4 2 1			30주
		한의학과 1 원전3	4 2		원전4	4 2			
상지	60	한의학과 2 원전1-1	3 2		원전1-2	3 2 1			
		한의학과 1 원전2-1	3 2		원전2-2	3 2			
우석	30	한의학과 2 원전1	3 2		원전2	3 2 1			
		한의학과 1 원전3	6 3		원전4	6 3			
세명	40	한의학과 1 원전1	5 3		원전2	5 3 1			
경원	30	한의학과 1 원전1	6 3		원전2	6 3 1			
동신	40	한의학과 2 원전1	2 2		원전2	2 2 2			
		한의학과 1 원전3	4 4		원전4	4 4			

표 1 한국한의과대학교육협의회.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1집. 2000-2001. 2001.10.25. 참조.

표 1에서 제시한 각 대학의 원전학 교육현황을 분석하면 대체로 2개 학년에 걸쳐서 원전학이 강의 되고 있으며(8개 대학), 하나의 학년으로 합산하여 주당 강의시간을 산정해 보았을 때, 주당 6.68시간의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다. 원전학이 한의학 기초이론이지만 한의학 전반에 걸친 방향을 설정해준다는 점에서 두 개 학년에 걸친 강의를 이루어지는 대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원은 전국적으로 68.18명으로 학교별로 많게는 네 배 가량 차이를 보여서 각 학교별 교육의 운영상 전임교원이나 강의형태 등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분반 강의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처음 조사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각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차후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서 큰 편차는 보이지 않았다.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동내용	학년	1학기	시간	학점	2학기	시간	학점	전임	비고
경희	전선제-	난경	운기	동의보감	금계요약			2(2)	2명 의사학
원광									
동국									
대구								2	
한의									
대전									
동의	학점변동	한의학과	원전3	4 3	원전4	4 3			
상지	과목학점	한의학과	원전1	2 2				2	조사요류 인듯
		한의학과	원전2	3 3					3집자료 참고
우석									
세명									
경원								0	
동신									

표 2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2집. 2003-2004. 2003.8.30. 참조.

표 2에서는 다섯 개 대학이 원전학 교육관련 변화가 보이는데, 교육과정상 변화는 그다지 유의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 각 대학 전임교원이 세 개 대학에서 충원되고 한 개 대학에서 전임교원이 없는 결과를 보여준다.

변동내용	학년	1학기	시간	학점	2학기	시간	학점	전임	비고
경희									
원광	시간학점	한의학과	원전학1	4 4	원전학2	4 4			
		원전학3	3 3	원전학4	3 3				
동국									
대구									
한의									
대전									
동의									
상지	과목시간	한의학과	원전1-1	4 3	원전1-2	4 3			
		한의학과	원전2-1	4 3	원전2-2	4 3			
우석									
세명									
경원								1	
동신									

표 3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3집. 2005-2006. 2006.2.16. 참조.

표 3에서는 교과과정상 두 개 대학이 변화를 보이며, 전체 평균적인 형태로 변형되었으며(즉, 두 개 학년에 걸쳐서 주당 7시간 가량의 수업을 2년 가량 진행), 모든 대학에서 전임교원이 갖추어졌음을 보여

준다.

### 3. 원전학 교육 심층조사

이상의 기초현황과약을 근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한의학의 원전학 교육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원전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선정을 통해서 어떤 경향성을 파악하기에는 표본의 숫자가 적어서 심층 현황과약 과 문제점 제시 차원의 설문항목을 선정하였고 각 대학의 상황을 분명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직접설문(direct survey)의 방법을 취했다<sup>7)</sup>.

조사기간은 2006년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였으며, 조사방법은 서면조사를 통해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메일, 통화 및 보충인터뷰를 등을 통해 설문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다. 상기 기초 현황조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합해서 총 10개 문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가운데 정원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고, 포괄해서 살펴볼 수 있는 문항 하나를 합해서 아래에 8개 항목에 걸쳐 살펴본다. 설문문항의 선정은 논자가 2001년 이후 경희대와 경원대에서 개별 진행한 원전학 강의설문과 학생들이 만들어 낸 설문문항<sup>8)</sup> 가운데, 빈도가 높고 원전학 교육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문항 위주로 선정하였다. 조사가 이루어진 문항에 대해 대학별<sup>9)</sup>로 살펴보고 약간의 논의를 첨부한다.

1) 원전학 교육이 진행되는 (1)학년과 학기(주당시수), (2)진행하는 교수님 수(강사포함), (3)전임 비율

학교	학년	주당 시수	학기	전임	비전임	전임 비율	비고
경희	예2-	6	2	2		100	본1 전환중
	본1						
원광	예2-	4	4	1	2	33	
	본1						
동국	본1	6	2	2		100	
대구한의	예2-	4	2	1		100	예2 5시간전환중
	본1						
대전	예2-	2	4	4	0		본1-1학기 7시간 결임2.강시2
	본1						
동의	예2-	4	4	1	1	50	
	본1						
삼지	예2-	4	4	2		100	
	본1						
우석	예2-	3-6	4	1	1	75	시수감안
	본1						
경원	본1	6	2	1		100	
세명	본1	5	2	1	1	60	시수감안
동신	예2-	2-4	4	1		100	
	본1						

표 4 원전학교육 진행학년, 시수, 학기수, 전임교원비율. 2006. 9.

상기 문항에 대한 정리표를 살펴보면, 교육현황 3집에 비해 커다란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교육현황에서 대략적으로 살펴 본 것처럼 2개 학년에 걸쳐서 교육하는 대학이 많았으며(8개, 경희대, 대구한의대는 학년이 걸치지만 2학기만 진행), 주당 평균 6.59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 한의학의 기초를 잡고, 한의학 기초 이론의 개념설정과 관련하여, 한의학의 방향 설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예과 2학년 보다는 본과 1학년에 시수가 늘어나고 강조되는 경향이 보인다. 이런 경향은 6개 학교에서 전임교원이 원전학 시수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점에서 한층 더 엿볼 수 있다. 원전학 시수 전임비율의 평균은 74.36%에 이르렀다. 그러나, 원전학을 담당하는 각 대학의 원전학교실에서 담당하는 과목이 대단히 많고(한문, 의학한문, 경전강독, 의고문, 운기학, 사서강독, 의사학<sup>10)</sup>, 각가의론, 상한론, 온병학 등), 전체 학년에 과목이 걸쳐 있어 학생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원전 관련과목을 접해야 한다<sup>11)</sup>. 이에 반해

7) 옥치상. 연구방법론과 논문작성법e-book. 서울. 지구문화사. 2001. p. 133, 270. 참조.  
 8) 학기를 마치며 개별 강의평가를 위해 독자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이었으며, 당 학기 수업의 장단점과 개선점을 묻는 설문과 수업 평가시 적합한 설문문항 만들기 등이 있었다.  
 9) 설립순으로 정리하였다.

10) 의사학, 각가학설 등의 과목을 위주로 운영하는 의학교실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대학(경희, 원광, 동의)도 몇 있지만, 아직 많은 대학에서 전임교원의 부족으로, 또 학문간 연계성 때문에 원전학교실과 의학교실이 통합 운영되고 있다.

전임교원의 수는 매우 적어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 강의를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원전학 관련과목의 특성상 지금보다 대폭적인 전임교원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각 학교별로 원전학이 기초 이론교육의 핵심과목으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으면서도, 한 곳에서도 분반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 의약계열의 일반적인 교육추세에 따라, 또 미래지향적 전문적 의료인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2) 현재 원전학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교재와 부교재

	주교재	부교재	참고
경희	유편황제내경	금원사대가학설	
원광	소문왕빙주 의학입문-장부, 운기편	유편황제내경	
동국	유편황제내경 종의운기학 내경영추		
대구 한의	유편황제내경		
대전	유편황제내경 난경연구집성		
동의	유편황제내경 왕빙주		
상지	유편황제내경		소문차주집소 등(적합한 주 소개)
우석	유편황제내경 난경	주해보주소문영추	
경원	교감직역황제 내경소문영추	유편황제내경 주석소개 정리	황제내경소문주 석, 소문차주집소, 영추강의 등
세명	유편황제내경, 의학입문		2004년-왕빙주, 2005년-왕빙주, 유편황제내경
동신	유편황제내경	의학입문-장부 전총록	유경, 왕빙주

표 5 대학별 원전학 교재, 부교재 및 참고자료. 2006. 9.

본 설문 문항에서는 각 대학별 원전학 주교재, 부

11)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1집을 참고로 살펴보면, 원전학 관련과목의 총 시수는 각 대학 평균 주당 19.36시간(의사학 포함)이다. 여기에 대학원 9시간(3과목 기준)이 더해지면, 평균 주당 30시간에 가까운 수업을 원전학교실에서 담당해야 한다. 평균 전임교원이 3명 이상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재로 쓰이는 책과 참고자료를 조사했다. 2005년 공통교재(『類編黃帝內經』)가 발간되고 각 대학별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대학에서 공통교재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공통교재만을 주교재로 선정하는 대학은 4개 대학이었으며(36.4%), 그 외 6개 대학(54.5%)에서는 공통교재를 주교재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운기학, 『靈樞』, 王氷注, 『難經』, 『醫學入門』 등의 교재를 아울러 주교재로 선정하고 있다. 2005년 초판이 나오고 2006년 개정판이 나왔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충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금번 조사에서 공통교재의 개정이나 개선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sup>12)</sup>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무엇보다 개정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素問』과 『靈樞』의 순서에 맞추어 진행하던 수업이 주제별 類編에 따라 진행되면서 체계를 잡아가는데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부교재나 참고자료로 가장 많이 선정된 것은, 계속 읽혀왔던 王氷注였으며(『素問次注集疏』 포함), 『難經』의 경우 1996년과 2006년 韓醫科大學 學習目標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처럼, 교과과정에 『難經』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만큼, 『難經』의 공통교재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경원대학교의 경우, 2005년 초판 공통교재에 대해 학생들의 조별 정리보고서를 통해, 실제 수업시 학생들의 입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지적하도록 하였고, 여기서 제기된 문제점은 2006년 개정판 출간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제는 공통교재를 주교재로 활용(뒷부분 원문)하며, 주석을 참고로 소개하는 방식을 학생들도 선호하게끔 되었다. 올해에도 공통교재에 대한 조별 정리보고서가 부과되었다.

3) 각 교재의 진도부분

	진도비율	비고
경희	거의 100%	
원광	소문 60%(30편내외)	입문-정부, 운기7편
동국	전체 60%	소문 45편내외, 운기편, 영추 40편내외
대구한의	마치지 못함	
대전	내경:난경=3:1	다하지는 못함
동의	거의 100%	
상지	대략 80%	경락, 병증일부, 운기, 진단, 치료 등 일부생략
우석	내경:난경=3:1	
경원	대략 40%	소문30편 내외, 영추40편 내외
세명	편별진행	운기, 질병
동신	대략 80%	경락, 병증, 운기일부 생략

표 6 각 교재의 진도부분, 진도비율, 2006. 9.

본 설문 항목에서는 각 교재의 진도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이전의 1995년과 1996년 한의과대학 학습 목표<sup>13)</sup>에서도 그렇고, 2006년 개정작업이 진행된 한의과대학 학습목표에서도 제시한 진도의 비율을 맞추어 진행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습목표의 개정이 조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업방식의 편차에 따라 조금씩의 진도나 교육 부분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규 과정을 마친 학생이 꼭 익혀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공유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통교재가 개발된 측면도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교재는 대략 원문의 15%정도를 추려서 교육한다<sup>14)</sup>. 다

13) 全國韓醫科大學 教育協議會, 大韓韓醫學會,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 서울. 大韓韓醫學會. 1995. 10. 및 全國韓醫科大學 教育協議會, 大韓韓醫學會,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 1996年 改訂版. 서울. 大韓韓醫學會. 1997. 3.

14) 賀娟, 北京中醫藥大學 內經教研室 教授. 2006. 9. 24. E-mail 답신에서, 그는 중국에서는 內經이 2학년 1학기 매주 4시간씩 교육되며(18주 72시간), 교수나 부교수가 담당한다고 하였다. 교재는 王洪圖 교수 주편의 內經選讀, 內經學 등이 주로 쓰이며, 원문의 15% 가량을 학습한다고 하였는데, 주로 의학이론과 그 응용 및 철학사상에 대해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의의였던 의견은 해당 과목이 이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본초학이나 방제 등의 과정을 마친 후 內經을 강의하여야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인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王洪圖 교수도 강조하는데, 그는 內經講義

만 중국의 경우 우리 나라 수업시수의 절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교재의 분량이 적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4) 수업방식

	수업방식	비고
경희	강독식	
원광	강독식	
동국	조사발표식	소문-세미나 15분 가량, 강독 영추-발표와 토론유도, 강독
대구한의	강독식	
대전	강독식	
동의	강독식	
상지	강독식	토론식 보충(제대로 시행 안됨)
우석	강독식	
경원	강독식	토론식 보충(잘 안됨), 공통교재는 조사발표식
세명	강독식	지난학기-조사발표, 윤독 및 보충, 수업부실의 지적, 예습은 효과, 조별만의 예습, 강독식-예복습 효과는 없으나 수업이 충실
동신	강독식	

표 7 대학별 원전학 수업방식, 2006. 9.

본 설문 항목에서는 각 대학별 원전학 수업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원전이 갖는 성격 때문에 대개 강독식 위주의 다소 일방적 수업방식이 취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보충적으로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으나, 토론의 문화가 성숙되지 않아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점을 살필 수 있다. 다만 동국대의 경우, 과목명 자체를 “원전 및 세미나”로 지정하여, 실습비 문제와 강좌시수의 확대를 피하고 있으며, 이런 방식은 토론을 통해 스스로 한의학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5) 원전학 수업시간의 보조자료, 교구 등

의 강의에서 國家中醫藥管理局에서 本科生的 後期 심화학습 과정으로 內經講義를 설정하고 있다. 그만큼 전체 중의학의 교육에서 지배적 위치라는 것이다.(王洪圖, 黃帝內經[VCD]. 北京. 北京協和醫學音像出版社. 2005. 第一講)

보조자료 교구	
경희	특별히 없으며,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약간 활용
원광	특별히 없음
동국	소문-매번 프리젠테이션 이용 영주-토론과 학생발표시 노트북 활용
대구 한의	내용정리 인쇄물 활용
대전	특별히 없음
동의	참고서적 등 소개
상지	특별히 없음. 참고서적 필요한 경우 소개. 12경맥은 OHP 활용
우석	프리젠테이션, 동인 등
경원	보조프린트물, 침구모형, 동인, 참고서적(판본관계)
세명	강의 mp3(출음성은 떨어짐) 질병 등 임상비디오가 있으면 좋겠음. 집중도가 떨어지는 단점
동신	참고서적 등 소개(유경, 경약전서, 입문 등) 동인도, 의학입문 제책체상 등 차트

표 8 원전학 수업시 보조자료와 교구 등.  
2006. 9.

본 설문 문항에서는 원전학 교육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교구나 참고자료 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 본 것이다. 역시 강독식 수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별다른 도구를 활용할 만한 기회가 적고, 또 설사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준비의 과정은 번거로운 데 반해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매번 교구를 활용하는 대학도 눈에 띄었는데, 아직은 각 학교별로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는 어두운 조명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개별 보조인쇄물의 배포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수업내용과 직결되는 임상비디오 등의 시청각 자료, 針灸(특히 九鍼 등)의 모형, 銅人 등은 『內經』 내용과 관련하여 수업의 이해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강의자체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sup>15)</sup>도 있고, 국가적으로 『黃帝內經』을 선전하기 위해 60편에 이르는 『黃帝內經』 특집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sup>16)</sup>도 있는데, 이

15) 王洪圖. 黃帝內經[VCD]. 北京. 北京協和醫學音像出版社. 2005. 여기서는 저자가 지은 內經講義가 교재로 사용되었다.

16) 于江泓, 王黎亞. 黃帝內經. 六十集大型電視紀錄片黃帝內經解說詞. 廣州. 花城出版社. 2004.

런 작업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다면 빨리 번역을 통해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원전학 교육의 현장감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6) 강의시 중점을 두는 부분

강의시 중점사항	
경희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배양 다수의 논문작성을 통해 찾아보는 공부 유도
원광	소문의 앞부분(약 10편 정도까지) 중시 한의학적 사고능력 배양
동국	한의학 중심이자 모태적 학문-한의학 정신강조
대구 한의	내경을 빠짐없이 읽는 데 중점(통독)
대전	경락유주계통과 원전의 정확한 이해(구술시험)
동의	소문 앞 부분 10편 정도 중시
상지	원문이해능력(적합한 주석중심), 주석가 사이의 주장설명 병증은 임상연계 설명
우석	한의학사유능력>임상활용성>생리병리연계>자력독해능력순 정확한 문맥파악을 통해 스스로 정리, 소문영추 앞부분
경원	실제임상에서의 의미파악(부족한 느낌), 의학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세명	한의학 기타 과목의 기초와 핵심-가교역할에 중점
동신	한문독해능력제고, 기본원리파악, 임상과의 연계

표 9 원전학 강의시 중점을 두는 부분. 2006. 9.

본 문항에서는 각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이 실제 강의시 염두에 두고 강의하는 부분, 강의시 중점을 두는 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것이다. 대부분 대학 교수들은 원전을 통해서 한의학적 사유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으며, 그 과정은 『素問』의 전반부를 통해 제시되는 陰陽五行적 사고에 대한 훈련으로 해당 부분의 내용을 중시하였다. 원문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의학적 사고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전학 교육은 한의학 기초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원전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교학 상호 측면에서)

원전학 교육 향상의 방법	
경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배양 원문 주석의 재해석-심도있는 내용을 계통적으로 정리해야
원광	넓게 볼 것인지, 깊이 볼 것인지를 조화 스스로 원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동국	온고지신
대구 한의	통독을 통한 이해
대전	분반강의-필도있는 수업진행, 원전의 정확한 이해
동의	동양철학 등 기반공부, 다양한 원전자료 참고 현대 의학과 결부하여 한의학 이론 재해석 필요
상지	임상과 연결된 강의개발-임상에 대한 학생육구 충족시켜야 적절한 이론과 이론의 접촉 필요
우석	저학년 때 원문 접할 기회를 늘려야 임상과 연계성을 가지고 설명
경원	정확한 해석능력과 사고능력 상호배양. 쉽고 간단한 교재필요
	임상연계, 저학년 때 스스로 원전을 읽는 능력을 배양해야
세명	임상의서에 대한 강독을 통해 원전이해 심화 동의보감, 의학입문 등 강독이 필요
동신	한문독해능력 제고 문헌정리필요 질실-교과강과 주해작성 필요

표 10 원전학교육 향상을 위한 방법. 2006. 9.

본 설문 문항은 각 대학의 교수들에게 원전학 교육의 방법 향상에 대해, 교학 상호 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아 본 것이다. 6) 문항에서 살펴 본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의학적 생각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과 정확한 이해를 우선으로 꼽은 교수들도 있고, 내용 이해에 기본이 되는 배경을 익힐 것을 주장한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원전학 수업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임상과의 연계’가 가장 와 닿는다<sup>17)</sup>. 실용학문의 특성상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지에 대한 대답을 해 줄 수 없다면 계속 현실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며 그건 원전학 자체가 가진 특성도 아닐 것이다<sup>18)</sup>. 임상적 주석이 필요하

17)王洪圖. 黃帝內經[VCD]. 北京協和醫學音像出版社. 2005. 第一講. 北京中醫藥大學 王洪圖 교수는 內經의 특징과 관련하여 학습에서 중시할 점으로 ① 정체적 각도에서 생명규율 파악 ② 대비적 사고 중시 ③ 서로 다른 배경의 파악 ④ 이론과 실천의 연계에 주의 ⑤ 이론적 기초 위에서 압기의 중시 ⑥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익히며 요약할 것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증점은 임상에서 제대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총괄하고 있다.

18) 이와 관련하여 原典 특히 內經 수업이 꼭 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는가라는 고민도 제시되었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고적으로 진행된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원전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시점에 와 있으며,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 교수들이 임상과 연계된 강의를 개발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런 점에서 임상의서의 강독, 즉 『東醫寶鑑』과 『醫學入門』 등의 강독이 필요하다고 한 의견은 이를 통해 다시 원전의 흥미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의견으로 파악된다.

8) 평가와 과제

성적 평가, 과제	
경희	논문5편(회당10-15, 총65) 중간10 기말15 수시10
원광	시험
	시험70 출석15 리포트15
동국	특별시험-음양상대론암송(30분내 5개이하 오류시 만점)
대구한 의	매주 족 격주 시험. 시험80 출석20. 과제는 없음
대전	시험
동의	중간45 기말45 출석 및 과제, 리포트 등 10 (시험:원문암기 12-13 내용이해 12-13 해석20-감점용)
상지	중간40 기말50 출석10 기출위주 제시 - 본1 중간45 기말45 원문쓰기해석 10 - 예2
우석	중간30 기말30 과제10 출석20 노트필기정리(수업), 의문점 자문자답(한의학전반) 중간30 기말30 수시20(구술포함) 리포트10(3-4회)
경원	출석10 공통교재 조별정리1 예비리포트1 논문예비계획서1
세명	성적70 리포트20 출석10 음독훈독 등 성독리포트, 토론주제거리 주제 리포트 등
동신	시험. 한문과 원리피와 겸비 부교재(전총록, 장부총론) 내용파악 과제

표 11 원전학 교육의 평가와 과제. 2006. 9.

본 항목은 원전학 교육의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원전학 과제로 어떤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것이다. 시험에 의해 대략 70-80점까지의 점수를 산출하고(평가항목은 대학별로 상이하지만 상기에 제시된 원문암기, 내용이해, 해석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과제와 출석 등의 점수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경희대의 경우 논문을 총점의 65점까지 배점하여 총 다섯 차례의 논문지도를 통해 사고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동국대의 암송시험과 경원대의 구술시험도 눈에 띈다. 과제로는 우석대의 노

하는 것’에 대한 설문에 대해 ‘원문을 통한 한의학 지식의 체계적 습득’(12명, 48%)을 ‘임상과의 연계’(8명, 32%)보다 더 중시하고 있다. (2006. 10. 25. 본과 1학년 설문조사)

트정리와 자문자답을 통한 사색과제, 세명대의 성독 리포트, 경원대의 공통교재정리 등이 인상적이다.

##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 기초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전학의 교육에 대해, 과거 원전학 교육의 개괄하고 원전학 교육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원전학 강의를 담당하는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원전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직접설문)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원전학 교육은 대체로 2개 학년에 걸쳐서 주당 평균 6.59시간의 교육이 전임교수비율 74.4%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 한의학에서 응용되는 여러 기초적 개념들을 정립하고, 한의학의 방향 설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강조되어가는 경향이 보인다.

2. 원전학을 담당하는 원전학교실에서 담당하는 과목이 대단히 많고, 학생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원전 관련과목을 접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보다 대폭적인 전임교원의 확충이 절실하며, 학교별로 최소한 평균 전임교원이 3명 이상이 필요하다.

3. 원전학 공통교재의 개발 이후 공통교재가 주교재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이 후 지속적 보완을 통해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원전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難經』의 교재개발도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4. 원전이 갖는 성격 때문에 대개 강독식 위주의 다소 일방적 수업방식이 취해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또한 강독식 수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별다른 교구를 활용할 만한 기회가 적다. 다만, 수업내용과 직결되는 임상비디오 등의 시청각 자료, 鍼의 모형, 銅人 등은 『內經』 내용과 연관하여 교육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대부분 대학 교수들은 원전을 통해서 원문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의학적 사유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으며, 그 과정은 『素問』의 전반부를 통해 제시되는 陰陽五行적 사고에 대한 혼련으로 해당 부분의 내용을 중시하였다.

6. 원전학 수업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임상과의 연계'된 강의의 개발이 시급하다. 임상적 주석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상서의 강독, 즉 『東醫寶鑑』과 『醫學入門』 등의 강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단행본>

1.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改訂版 類編黃帝內經. 大田. 周珉出版社. 2006.
2. 전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3집. 서울. 경희대학교. 2006.
3. 朴贊國.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4.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類編黃帝內經. 大田. 周珉出版社. 2005.
5. 于江泓. 王黎亞. 黃帝內經. 六十集大型電視紀錄片黃帝內經解說詞. 廣州. 花城出版社. 2004.
6. 王洪圖. 內經講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7. 王洪圖. 內經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8. 전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2집. 서울. 경희대학교. 2003.
9. 王洪圖. 內經選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1.

10. 옥치상. 연구방법론과 논문작성법. 서울. 지구문화사. 2001.

11. 전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1집. 서울. 경희대학교. 2001.

12. 박贊國. 黃帝內經素問注釋 上.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8.

13. 박贊國. 懸吐黃帝內經講義.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8.

14. 全國韓醫科大學 教育協議會, 大韓韓醫學會.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 1996年 改訂版. 서울. 大韓韓醫學會. 1997. 3.

15. 全國韓醫科大學 教育協議會, 大韓韓醫學會.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 서울. 大韓韓醫學會. 1995. 10.

16.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4.

17.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2.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20.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1.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2. 程士德. 素問注釋匯粹 上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24. 王琦 外. 黃帝內經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1.

25.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1976.

26.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1976.

27. 洪元植 譯. 黃帝內經靈樞解釋. 서울. 高文社. 1973.

28. 洪元植 譯. 黃帝內經素問解釋. 서울. 高文社. 1971.

29. 內經. 서울. 慶熙大學校 醫科大學 基礎學教室. 1970.

30. 王冰. 黃帝內經素問.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年代未詳.

31. 原書講讀. 서울. 慶熙大學校 醫科大學 漢醫學科. 年代未詳.

<기타매체>

1. 王洪圖. 黃帝內經[VCD]. 北京. 北京協和醫學音像出版社. 2005.

**부록. 설문내용19)**

원전 교수님들께

교수님, 경원대학교 김도훈입니다.

각 학교 원전 수업상황을 파악하고 조금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해 보고자 다음 몇 가지를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각 학교 원전학 교육의 상황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소속 학교와 정원

2. 현재 원전학 교육이 진행되는 ①학년과 학기(학기당 시수), ②진행하시는 교수님 수(강사포함)는 어떻게 되는지요?

3. 현재 원전학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교재와 부교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공통교재, 각 학교별 특

19) 본 설문은 2006년 9월, 경희대-백유상, 원광대-정현영, 동국대-김기욱, 대구한의대-이병욱, 대전대-김용진, 동의대-김중환, 상지대-이용범, 방정균, 우석대-육상원, 경원대-김도훈, 세명대-조학준, 동신대-이남구 등의 11개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성실히 답해주신 교수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별교재, 왕빙주, 원문편집본 등등)

4. 전임교수님과 강사의 시수 담당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5. 각 교재의 진도는 어느 정도 진행하시는지요?  
(담당 교재와 학기, 학년당 진도. 다 하시는지 부분부분별로 하시는지)

6. 수업 방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강독식, 조사 발표식, 토론식, 운동식 등)

7. 원전 수업시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프리젠테이션, 영상 비디오, 다양한 참고서적, 칠판 등인 등의 모형, 기타)

8. 교수님께서 중점을 두시고 강의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9. 원전학 교육이 더 잘 이루어 지려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리라 보시는지요?

10. 성적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며, 어떤 과제를 부과하시는지요?